

“살아있어 고맙다”… 이산가족 2차 ‘눈물상봉’

광주 출신 김순임씨 등 南 357명 참석

정치권 “규모·횟수 늘리고 정례화해야”

이산가족 2차 상봉단 357명은 23일 오후 면회소에서 북쪽의 상봉 대상자 88명과 단체상봉을 가지면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지난 22일 강원도 속초 한글원도에 집결한 남측 가족들은 이날 오전 8시20분께 속초를 출발해 고성 동해선 남부출입사무소(CIQ)에서 현대아산 버스로 갈아탄 뒤 상봉 장소인 금강산에 오후 1시께 도착했다. 오후 3시에는 60여 년 만에 북측 가족과 재회하는 단체상봉에 참석했다.

광주출신 김순임(여·75)씨도 이날 큰 오빠 김권수(82)씨와 ‘눈물 상봉’을 했으며, 남측 최고령자 이오순(여·94)씨는 북측 동생 조원제(83)씨와 재회했다. 이씨는 “동생이 죽은 줄 알아서 오래전부터 제사를 지냈는데 이렇게 연락이 와서 만나게 돼 기쁘다”며 “그동안 살아있어 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2차 상봉에 나서는 북측 가족 88명은

80~89세가 82명, 70~79세가 6명이다. 북측 최고령자는 88세의 권승렬·김희영·박종성 씨 등 3명이다. 각각 동생 등 3~4명의 남측 가족을 만났다. 특히 이번 상봉에는 미국에 거주하며 남편을 따라 성까지 바꾼 김경숙(81)씨는 북쪽의 오빠 전영의(84)씨를, 깨나다녀 사는 최정수씨는 전쟁통에 헤어진 북한에 사는 언니 정애(79)씨를 만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 이번 상봉에 참가했다.

첫 단체상봉 후 이산가족들은 오후 7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열린 남측 주최의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한편 여·야 정치권에선 상봉 행사의 규모와 횟수를 늘리거나 상봉을 정례화해야 한

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민현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상봉 규모가 덜없이 작아 7만 이산가족들은 다음 상봉행사 개최 여부만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희자는 로또 상봉이라고 한다”면서 “이산가족 상봉 규모 확대 및 정례화 등의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60년을 기다리고 단 몇 시간만으로 한을 달래고, 기약 없이 이별해야 하는 고문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면서 “정치 변화에 좌우되지 않는 이산가족 상봉의 일상화 및 대규모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연합뉴스



“하염없이 눈물만...”

그저 물 수밖에 없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2차 첫날인 23일 오후 금강산면회소에서 열린 단체상봉에서 북측 전영의(84)씨와 미국에서 온 동생 김경숙(81)씨는 이야기 한 마디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만 손수건으로 얹신 닦아냈다.

/연합뉴스

부채비율 단계적 축소·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광주시·전남도, 공기업 고강도 경영 개선 나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방 공기업 혁의 지가 없다’는 지적(광주일보 19일자 3면)과 관련해 강도높은 공기업 경영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3일 “부채 감축과 경영 효율화 방안을 수립, 산하 공기업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와 도는 모두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채감축 목표제를 실질적으로 이행, 부채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시는 중기 재무관리 계획의 의무화, 신규사업

시스템 기능을 개편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

특히 전남개발공사는 영유아보육비, 직원능력개발비 등을 폐지하는 등 복리후생 관련 예산을 절감하고, ‘남아골프클럽’과 ‘영산호류게소 부지’ 등 보유자산을 매각해 조기에 부채를 상환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출연 기관 기본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조례에 따라 사장의 해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작성지

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부채가 1000억원 이상인 지방공기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장의 승인과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 4월 말까지 안행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공기업들은 사업구조조정, 미분양 자산 최소화, 원가절감과 수익창출 등 부채 감축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부채감축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진행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신규 사업은 추진하지 못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세계수영 개최권료 200억 광고권 판매로 충당한다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사상 최대 흥자대회’를 선언한 광주시가 그 첫 사업으로 공식 타이틀 광고권을 기업에 판매하기로 했다.

대형 국제대회 유치시 연맹은 납부해야 하는 개최권료는 예산(세금)으로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광주시는 세계수영대회의 개최권료(2000만달러·

광고권 유효 기간은 4년이었으나, 이번 2019 세계수영대회는 광주시가 ‘흑자대회 실현’ 등을 이유로 세계수영연맹을 적극 설득한 끝에 8년으로 늘었다.

특히 2019 세계수영대회 공식 타이틀 광고권 해당 업종이 전자 분야로 정해짐에 따라 광주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 소니 등 국내외 대형 전자 분야 기업들을 접촉할 계획이다.

시는 단일 기업에 8년 째 광고권을 판매하는 방안과 2개 기업을 선정해 4년짜리 광고권을 각

200억원)를 광고 판매 대금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유치한 2015 광주하게유나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는 개최권료 300억원 모두 세금으로 지급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세계수영연맹에 지급하기로 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권료 2000만 달러를 공식타이틀 광고권 기업 판매 대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조만간 국내의 기업들과 접촉할 방침이다.

2019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대회 공식타이틀 광고권을 확보하는 기업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세계수영대회는 물론 수중발랄, 다이빙,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등 단일종목 수영대회에서도 기업 광고를 통해 이미지를 높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세계수영대회가 대회 역사상 세계 최고의 흥자대회와 명품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겠다”면서 “일단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천일염 인력 공급센터’ 추진

전남도는 23일 “지역 대표산업인 천일염 산업 종사자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공급하는 ‘천일염 인력 공급센터’(가칭)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염전 근로자 인권 침해 사건’ 이후 관계 기관과 대책을 논의해 염전 종사자가 인권 침해 없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염전 운영자 역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받기 위해 이 같은 시설이 시급한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 센터는 염전 근로자 고용과 알선, 상시 고용 실내조사와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정규직 채용방안 등도 추진하

게 된다.

센터는 전남도와 해당 지자체가 기금을 출연해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도는 조만간 해양수산부, 목포고용노동청,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과 세부 사항을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염전 인력난 해소와 양질의 인력 공급을 위해 염전 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염전 종사자에 대한 인권, 노동, 위생, 품질관리 등에 대한 종합교육을 실시하는 현관 운반시설 등 노동력 절감장비 보급 확대, 염전 임차제도 법제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개>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각 물건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 고
		소 재 지 및 면적 [㎡]	용 도		
[아파트]					
2013타경 10258	1	여수시 소재 5층 39.108동 3층 304호 [소 출동, 프레지던트]	아파트	132,000,000 원 차임있음	
2013타경 13594	1	순천시 병화1길 146-903동 10층 1004호 [소재동, 병화그린빌아파트]	아파트	142,000,000 원 차임있음	
2013타경 13983	1	순천시 석전길 70-101동 9층 904호 [석전동, 향림현대아파트]	아파트	122,000,000 원 차임있음	
2013타경 14030	1	광양시 광장로 112-11, 104동 7층 701호 [광장동 아파트마](부증 84.95m²)[공유자최초출자지분 100%][부증 100%][본부증 100%][부증 100%]	아파트	62,000,000 원 공유자우선매수권 62,000,000 원 행사제한	
2013타경 14368	1	순천시 서면 배들마길 17-107동 1층 104호 [신령배들마마을주공아파트]	아파트	95,000,000 원 차임있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3타경 13105	1	여수시 광화동 3층 58.28㎡ 변소 결 욕탕 [1,34.1m²]	단독주택	70,582,200 원 일괄매각	
[대지/임야/전/답]					
2013타경 41324	1	보성군 법교읍 장도리 23-860m² [보성자박종협지분전부]	대지	14,784,000 원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기타]					
2013타경 8318	1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452-10892㎡ [단독주택]	기타	3,962,315,000 원 일괄매각, 목록14 대, 목록2000 원	
2013타경 9755	1	구례군 산동면 탐정리 348-2 1102㎡ [단독주택]	기타	43,005,000 원 일괄매각, 제시와 43,005,000 원 목록매각제외, 농지취득자격증명	
2013타경 17923	1	구례군 산동면 탐정리 435-484㎡ [단독주택]	기타	8,112,000 원 일괄매각, 대, 8,112,000 원 상도지에타인소유 건물소재	
2013타경 13877	1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872-440㎡ [단독주택]	기타	7,040,000 원 막내상도지에타 7,040,000 원 인수유건물소재	
2013타경 13921	1	광양시 광양읍 대례리 신268-4 1405㎡ [단독주택]	기타	22,480,000 원 22,480,000 원	
2013타경 14580	1	고흥군 풍양면 삼림리 447-2100㎡ [단독주택]	기타	12,810,000 원 농지취득자격증명 12,810,000 원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각 물건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 고
		소 재 지 및 면적 [㎡]	용 도		
[기타]					
2013타경 14146	1	여수시 화진 1373-5269.8㎡ [기계기구목록특장조]	기계기구목록포함	2,102,106,800 원 일괄매각, 제시와 2,102,106,800 원 건물포함, 구역기계기구목록포함	

2014.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박광의